EUNSEOK CHURCH MATHETES

고난의 의미

신윤식

고난은
때로 눈물을 부르고
마음을 흔들어
아픔으로 맴돌다
가시가 되어 박힌다.

고난으로
평온은 깨어지고
어지러운 번민만
세찬 파도처럼 밀려들어
길 가에 널브러진다.

고난이
좌절의 웅덩이로
나를 들어 던지며
불평의 계단에 올라
하늘을 향해
원망의 소리만 있게 한다.

고난 앞에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늘은 나를 보게 하고
쌓아올린 탑을 무너뜨린다.

비로소
믿음 없음을 알게 되니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에
마음이 향한다.
하늘은 그렇게
고난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제24권
34
2016.8.21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영원한 언약

겔 37:24-28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혼란과 의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시로 그 마음이 바뀌는 변덕으로 가득한 신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변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종교세계에 자기 경험과, 상상과, 지식과, 욕망에 덮인 종교성에 의해 구축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침체되고 기쁨이 없고 삶도 힘들어지면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실감이 나지 않고 거의 체념하게 되면서 교회는 아무 기대도 감동도 없이 단지 왕래하는 수준으로 쇠락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현대의 기독교인은 이러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길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위로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앎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앎이 바르게 구축되어지면 신자가 신앙의 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연히 누리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앎을 갖고 있다 해도 현실의 문제에서는 언제나 앎은 사라지고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낙심도 절망도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면서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오심에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침체된 것 같은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 즉 '성령의 내주'를 스스로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자신의 내면 상태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롬 7:24)는 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로 고백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죄로 가득한 존재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극복하고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이 주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신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직시하고 그 한계 앞에 무너진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그릇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고 조금씩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한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신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천의 여부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호 6: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 말합니다.

제사와 번제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규례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천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천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단절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절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본문 26절에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고,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겔 34:25,26절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임을 뜻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는 누가 봐도 복이 아닌 저주 아

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복은 화평의 언약관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저주에 속한 자로 심판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말씀하신 것은 복은 화평의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어떤 실천과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이 되는 실천사항을 만들고 그대로 실천하여 복을 받아보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애당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종교세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복과 함께 저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때문에 복에 대해서만 말할 수 없고 저주에 대해서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복과 함께 저주를 말함으로써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이며 누가 복의 세계에 해당되고 누가 저주의 세계에 해당되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복과 저주에 대해 크게 오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의 내막과 저주의 내막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성으로 자기를 위한 신을 찾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냐 저주냐' 라는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말할 때 누구나 복은 받고 싶고 저주는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복과 저주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과 저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곧 복의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사랑을 언약이라는 방식에 담아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화평의 언약'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행하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심으로써 화평의 관계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4,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한 목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두 막대기가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고 목자가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27절에서는 내 처소가 그들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고, 28절에서는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은 성소, 처소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처소는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 아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한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성만을 바라보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완성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엡 2:14-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본문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성소, 처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다시 데리고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하나 됨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특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차별되지 않은 관계에 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의미를 아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죄를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죄를 보게 됨으로써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고 말씀하지만 사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인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골 3:11-14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

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나라 즉 교회입니다. 선함을 행한 인간의 실천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하늘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화평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으로 한 몸의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화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화평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다만 죄의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행위가 우리를 죄인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하십니다. 우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과 지옥

막 9:43-50

믿음 76강 7. 31일 설교

사람들에게 지옥은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지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볼 못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 속에서 고통 받는 곳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상하기만 해도 지옥은 무서운 곳으로 각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옥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지옥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옥과 반대로 천국은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히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 역시도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천국 개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 낸 천국과 지옥

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손이나 발, 눈이 범죄 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고 빼버리라고 합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으로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한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죄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 5:22)**는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수준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또한 지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발자체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기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부터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옥은 죽음 후의 문제로 밀쳐놓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옥은 오늘의 문제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옥을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으로 밀쳐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곳으로 각인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 16: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믿고 또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무서운 곳으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관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속한 존재이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것은 복에 대한 기대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일종의 보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은 지옥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지, 지옥불이라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누가 지옥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만약 지옥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되면 '지옥

은 가지 말아야 할 곳' 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지옥에 해당된다는 실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지옥 갈 자인가?" 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보게 되면 지옥의 현장에 있는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지옥에 찾아오셔서 피 흘리시는 손으로 나를 붙잡고 끌어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넋두리 하는 듯 '죄인입니다' 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해당되는 자기의 현실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주의 현장인 지옥에서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한 것입니다(롬 5:20).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고통의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미미하나마 짐작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불속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지옥불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말하지만 이것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실적 묘사로 이해하게 되면 일단 지옥과 천국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 천국은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지옥과 천국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것이 곧 천국이고 언약 밖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향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물 한 방울이 혀를 서늘하게 할 수도 없지만 서늘하게 한다 해도 금방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 한 방울로 위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의 부자의 절규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절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물 한 방울로 절규할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사랑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럼으로 지옥을 죽음 이후에 고통을 겪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의 지옥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을 향해 가는 불상사만 초래할 뿐입니다.

저는 죽음 이후의 지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로 묘사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실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 로 되어 있는데 게헨나는 구약 성경에서 '힌놈의 골짜기' 를

의미합니다.

힌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이치하고 있었는데(수 15:8),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렘 7:31). 때문에 이 골짜기는 당연히 제물로 바쳐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임의 골짜기로 일컫습니다(렘 7:32). 이처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조차 불살라 죽인 이곳을 지옥불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그것이 곧 신자에게는 지옥이며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세에서의 지옥의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은 바로 오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에서 지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 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음이 향하는 것이 믿음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옥 가기 싫다' 가 아니라 지옥 자식인 나를 구출하시고 생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신비에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죽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절규하는가를 보십시오. 지옥의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이 절규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으로 인해서 예전에 절규하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에 대해 목말라 하는 새 영, 새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그 것으로 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목마름 또한 그리스도로 목마르지 않게 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

창 47:27-31

113강 2016. 8. 10일 설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고 나이가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17년의 애굽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알리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존재 이유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2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 말씀하는 것으로 애굽에서의 17년 세월은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고 말합니다.

죽을 날을 앞두고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의 성격을 띤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부른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라는 말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 덕분에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여 생존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의미로 말했다면 야곱은 여전히 생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배운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예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 역시 단지 생존의 문제에 도움을 입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생존해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손을 야곱의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고 한 모든 말은 요셉의 인애와 성실함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을 본 것이고 그 인애와 성실하심에 자신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탁하는 것은 애굽에서 자신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것이 야곱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탁은 요셉보다는 장남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죽으면 장남인 르우벤이 가문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서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죽은 후의 자기 몸을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조상의 묘는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었던 헷 사람들은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그냥 사용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봐 두었던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지불함으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손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어디에서 생활하든 자신들이 거할 땅은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달라는 야곱의 말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풍요

를 누린다 해도 애굽은 나와야 할 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전의 야곱이라면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풍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신이 영원히 쉴 것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살전 4: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뒤에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거룩한 백성을 완성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고 언약을 믿는 신자는 이미 언약의 성취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조상의 묘에 장사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이 성취 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믿는 자로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것이고 신자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위해 약속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생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어떤 형편을 살든 괜찮은 것이 신자라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약속되었고, 약속의 성취로 인해 신자가 영원히 거할 곳은 분명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은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어떤 행함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 안에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야곱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바로 오늘이 죽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죽을 날을 앞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 신자는 산다는 것에 대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죽었을 때 나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조상의 묘에 장사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소망을 두면서 죽음 후에라도 약속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야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끌어 오신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로 말했지만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온 덕분에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험악한 세월도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1. 우리에게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비의 사건이며 기적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죄인 된 우리가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시고 세상과 다른 감사와 기쁨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지난주에 실시한 총회은급 헌금은 80만원입니다.
3. 박위선 권사님이 신애요양원(달성군 가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상사화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 요 일	7:30
주일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8장
교 독 문 ····· 116(구주강림2)
기 도 ····· 송홍인 집사
찬 송 ····· 285장
성경봉독 ····· 겔 37:24-28

◐ 영원한 언약(91강)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4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24장
기 도 ····· 송수경 집사
찬 송 ····· 338장
성경봉독 ····· 계 22:20-21

◐ 믿음과 재림(믿음79강)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79장
주기도문 ·····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임수희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강해 115강